

## 역사성의 제 관점과 권력변화

남 중 현

경영학과

(1984. 4. 30 접수)

## 〈요 약〉

사회학과 역사학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자주 일컬어진다. 이 양자의 접근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사회학자로서 역사성에 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 몇몇 현대사회학자들의 이론을 요약 비교하여 본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이들이 공통적으로 역사성의 논의를 하면서 권력변화의 문제를 함께 중시하고 있는 점을 특히 주목하였다.

## Several Perspectives of Historicity and Power Change

Nam Joong heon

Dept. of Management

(Received April 30, 1984)

## 〈Abstract〉

It is currently discussed that sociology and history must be encountered, because the two approaches are obviously complementary. In this paper, first of all, I summarized several theories of contemporary sociologists who represent considerably particular features about historicity,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and then I didn't pass unnoticed of the fact that they all commonly emphasize the problems of power change.

## I. 머 리 말

M. Weber의 전통을 이어받은 T. Parsons가 구조기능주의(Structural-functionalism)를 집대성한 이후 사회학은 이 조류에 편승하여 꾸준히 많은 개가를 올려왔고, 이 구조기능주의는 사회과학의 첨단인 일반이론으로서 사회과학 각 분야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끼쳐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구조기능주의는 이 이론의 틀이 갖는 역사성의 문제에 관한 관심의 부족 때문에 매우 신랄한 비판을 받아왔다. 역사성에 관한 고찰은 일찍이 Marx의 유물사관 유물변증법에서 크게 취급된적이 있었다. Parsons의 기능주의 틀을 별로 벗어나지 못했던

Merton도 이 문제로 매우 고심한 흔적을 보이지만 대체로 Marx의 영향을 크게 이어받은 Darendorf 등 갈등론자의 비판이 두드러진다.<sup>(1)</sup> Parsons의 기능주의는 지나치게 목적론적인 분석, 기능주의적인 설정에 집착함으로써 시간의 개념과 변화의 개념이 도입된 종단적인 인과론적 분석이 간과되었다는 지적을 하고있는 것이다. 사회전체의 통합적 요소를 중시하여 사회의 목적을 사전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접근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일반화를 추구하는 기능주의는 현재의 구조성과 사회적 관계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구조가 나타나기까지의 역사적인 조건을 구체적 경험적인 차원에서 과해치는데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은 점차 사회를 이해하는데 이러한 역사성의 연구

(1) J.H. Turner,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Illinois, The Dorsey Press, 1978, pp.69-92, pp.121-158.

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여 시간의 변화에 따른 구조의 단계적 변화와 구체적인 인과관계의 규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학이 사회를 이해하는데도 도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엄격학문적 필연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sup>(2)</sup>

즉 사회학과 역사학은 서로 만나야 하는 것이며 사회학의 동시적 분석(synchronic analysis)의 강점과 역사학의 통시적 분석(diachronic analysis)의 특징이 상호보완적이라는 생각인 것이다.<sup>(3)</sup> 사회학은 구조에 관한 날카로운 분석으로서 현상들의 인식을 위한 일반화(generalization)의 틀을 지향한다면 역사학은 변화에 대한 역동적 분석에 걸쳐하여 특수성(particularity)을 잘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는 결합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그런데 사회학의 전통중 역사성에 관하여 강조하는 경향은 같은 서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계통과 유럽계통에 차이가 있다.<sup>(4)</sup> 대체로 유럽계통이 역사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은 실제로 역사가 짧고 안목이 짧은 경향을 띠고 매우 현실적 실용적이기 때문에 기능주의적인 전통이 강하고 반면에 유럽은 그 반대의 여건에 있기 때문에 역사성을 비교적 강조하는 학풍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사료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체로 유럽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거론하면서 옛날의 유물사관의 모델과는 달리 매우 진보된 견해를 취하고 있는 오늘날 몇몇 현대사회학자들의 다양한 역사관을 음미해보려고 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들의 역사성에 관한 관점들이 경제구조적 분석에 가까운 것이 있는가 하면 문화이념적 차원에 가까운 것도 있다. 아 물론 필자는 역사성의 문제는 오늘날 조직이론 및 사회학등 사회과학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명은 구조주의의 재해석과 문제점 극복의 과제가 되는 동시에 사회과학의 혁신적인 방향을 취급함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구조주의 보다 더욱 동태적(dynamic)이며 또한 상위적 방향설정적인 성격을 내포하는 역사성의 문제가 구조주의속에 융합될때에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실체의 이해의 틀을 재구성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열린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성의 접근은 사회과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취급

하는 것으로서 사회의 질서와 변동을 구분하는 이분법을 극복하고 있다고도 하겠다.

역사성의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학자들마다 서로 달라하는 견해를 살펴봄이 의미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는 각 학자들의 방대한 저서중에서 다만 필자가 접할수 있는 최근의 몇몇 저서의 내용에 의존하여 비교하고 분석하여 보았다. 비록 이러한 한정된 작업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선서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관심을 선포이 접할수 있었다. 그리고 필자가 아울러서 각 학자들의 역사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는 가운데 깊이 느꼈고 강조하고 싶은것은 역사성의 논의는 결국 권력의 대한 형식의 표현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점이다. 권력의 원천이 어떻게 결국 권력은 역사성의 총결산이며 역사사건이던 또한 권력 이상으로 나타나는 사회형태를 지닐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단축이다. 그리고 여기서 거론되는 학자들의 역사성 논의로역시 권력과 지배의 문제를 진오하게 함께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여기서 거론되는 학자들중 A. Giddens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대표적 사회학자이며 구조화이론(theory of structuration)의 제창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비판이론과 연계하여 매우 종합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구조의 생산과 재생산의 문제와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Marx의 유물사관을 비판적으로 더욱 새로이 재구성하여 권위적 자원의 축적개념(storage of authoritative resources)을 강조함으로써 발전적 역사성의 관점과 권력변화를 설명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독일계통의 학자로서 W. Schluchter와 J. Habermas의 입장을 동시에 소개하였는데, 이들의 역사성에 대한 관점은 또한 인지구조의 발달과 역사의 발달을 연계시키는 진화론적인 입장의 공통점이 있기에 함께 다루어 본 것이다. 그러나 W. Schluchter는 M. Weber의 종교사회학을 재구성하면서 합리화과정(rationalization)의 역사관을 정립하였으며 책임의 윤리(ethic of responsibility)와 사상과 이념의 현실속에서의 변혁적 역할을 정리하였으며 합리화과정에 의한 정당성(legitimacy) 확보가 권력의 형식이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반면, J. Habermas는 최근 비판

(2) P. Burke, *Sociology and Histor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0, pp.13-30.

(3) 박영신 논문, '역사 구조적 접근의 일반원리'(사회학연구, 1984년, 1호), 대영사, pp.30-31.

(4) S. Clegg, *The Theory of Power and Organiz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7.

이론학자로 대표되고 있는 사람인데 유물사관을 비판하는 가운데 언어구조, 의사소통의 능력(communitive competence), 보편적 언론의 윤리(universal ethics of speech) 등의 문제를 매우 특이하게 전개하였으며 정당시되는 언론의 관계속에서 형성되는 권력의 문제를 다루었다. Schluchter와 Habermas는 모두 진화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권력 문제와 관련하여 전자는 정당성의 형성이 진화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나타난다는 입장인데 후자는 정당성요인이 나타남으로 비판적인 변혁을 구상하였다는 점이 서로 상이하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날 프랑스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크게 명성을 얻고있는 A. Touraine를 소개하였는데, 그는 사회학을 바로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라고 규정짓고 사회의 중심에 불타고 있는 사회운동의 변동양상이 의하여 사회는 자기생산(self-production)해 나가는 특징을 지닌다고 보았다. 그는 역사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문화특성에 대한 통제(control of cultural orientations)의 경쟁이며, 이는 사회를 재생산하는 형식임을 보았다. 그는 이러한 역사성이 권력의 원천임을 밝히고 있고 역사성 속에서 행위자들의 중재(intervention) 과정을 미시적으로 분석해 나간 특이점이 있다.

이상의 역사성과 권력변화에 대한 제학자들의 내용서술은 편의상 역사성에 관한 관점을 비교하는 장과 권력변화에 관한 논의의 장을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사회학자들이 다양하게 피력한 역사성이 간한 관점들을 서로 비교해 볼때 개별의 접근들이 갖고있는 논리적 한계들을 인식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제관점의 유기적 결합은 사회현실을 좀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론에서는 특히 우리사회를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회학과 역사의 만남과 재해석의 필요성을 피력해 보았고, 아직 미래의 과제로 남겨 놓았지만 장기적이고 다양한 역사변화의 설명을 가능케 하는 환경적 외부적 요인을 증시하는 사회운동이 없는 역사(history without movement)인 geohistory<sup>(5)</sup>(또는 ecohistory)의 영역을 이후의 과제로 남겨놓고 있음등도 언급하였다.

(5) P. Burke, 앞책, pp.97-98. Braudel은 geohistory, 그의 제자 Le Roy Ladurie는 ecohistory라고 그 주장들이 명명될 수 있는데 뒤앙스가 다소 다르지만 여기서는 대체로 함께 포괄하여 취급하였다.

(6) A. Giddens,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1, pp.3-5.

(7) 앞책, pp.91-97.

(8) 앞책, p.5, p.100.

## II. 제관점의 비교

### 1. A. Giddens의 관점

Marx의 유물사관과 생산력 발전 및 계급투쟁의 역사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세계역사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새로이 조명하는 가운데 그의 관점이 나타난다. 그는 유물사관의 입장을 전적으로 파괴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라 Marx이론 스스로가 갖는 모순을 파헤치면서 극복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Giddens는 그의 구조화이론(theory of structuration)을 전개함에 있어서 권력의 형성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며 사회시스템 속에서 시간-공간관계(time-space relations)를 정교화하는데 노력하였다.<sup>(6)</sup> 그의 구조화이론에서 권력은 지배구조의 재생산을 통하여 생겨나며 이것이 가능한 자원의 투입을 크게 돌로 나누었다. 즉 그는 권력이 축적(storage)에서 나온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 축적에는 사회적 세계에 관한 지배관계가 되는 권위적 자원(authoritative resource)의 축적과 물질적 세계에 대한 인간지배의 배분적 자원(allocative resource)의 축적으로 구분 설명하고 있다. 이 두 자원은 사회의 전체성의 특징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Marx가 역사의 유물적 개념을 구성함에 있어서 배분적 자원에 우위를 두었으나 Giddens는 사회통합과 변화를 규정함에 있어서 권위적 배분이 더욱 결정적임을 주장하였다. 그가 제창한 시간-공간의 차별화(time-space distanciation)라는 새로운 개념은 권력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데<sup>(7)</sup> 권력은 모든 사회를 구성하는 시간-공간을 통하여 진행되며 축적되는 사회관계로 파악된다. 역사발전의 양상은 이러한 축적을 통한 구조화과정이며 동시에 권력행사 과정이다. 이러한 축적능력은 시간-공간 차별화의 확대를 통한 권력형성의 기본 요소이다(Storage capacity is a fundamental element in the generation of power through the extension of time-space distanciation)라고 하였다.<sup>(8)</sup> Giddens는 이러한

축적능력 지배와 권력이 구조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형태로 행사됨을 나타내며 자본주의사회 억압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는 배분적 자원의 축적보다 권위적 자원이 훨씬 결정적 중요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 권위적 자원의 축적이 국가의 지배(domination)와 착취와 감시능력(surveillance ability)의 기반이 되며 국가권력의 초석이 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 초기단계에서는 시간-공간의 차별화 과정을 통한 권력의 콘테이너(power-container)가 도시(city)의 형태로 나타났으나 점차 그 발전의 양상은 국가가 도시를 대신하여 권력 콘테이너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현대에 와서 국가의 권력이 비대하게 되고 폭력수단이 증가하게 되며, 독자적인 위치에서 경제질서에 개입하며, 또한 사회의 부문조직과 구성원들에게 대한 감시의 기능이 강화된 것은 이상에서 볼때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sup>(9)</sup> 이는 자본주의도 국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가는 사회조직의 두뇌(brain)와 같으며 복지국가의 입장에서 국가는 더이상 특정계급의 종속적 기구로 간주될 수 없는 독립된 권력의 원천으로서 구조화 능력을 갖으며, 또한 파생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가정과 직장이 분리되는 등 시간과 공간의 재조직 현상이 이와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산업사회를 규정하는 축적의 과정에는 시간, 공간의 양면에서 분석하여 볼수 있는데, 이는 진보적인 차별화(distantiation)을 촉진한 것이다. 공간적으로 상품화(commodification)되어가는 과정에서 경제적 축적과정은 명목화폐의 발명—이것은 하나의 상징, 정보라고 볼수 있는데<sup>(10)</sup> 교환가치는 크나 사용가치는 전무상태—으로 회전이 빨라지는데 실물(實物)의 움직임이 필요없이도 정보만의 교환으로써 거대한 소유권의 이전이 가능한 현상을 초래하는 등, 가치물의 축적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또한 시간적으로는 시계(clocks)의 발명으로 시간축정에 관한 정보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간의 계산은 자연노동을 인위노동으로 변화시켜 시간을 사고파는 상품화현상을 가속화시켜 속

도능력이 어느 한쪽에 편중 축적되는 현상이 나타나 관리와 감독의 현상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적 자원의 축적의 방향은 정보와 지식의 확대와 축적을 가능케 하는데 Giddens는 권력의 축적이 이러한 상징적 교류, 정보의 축적(accumulation of information)의 형식을 빌려 됨으로서 더욱 가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권력의 조건보다도 구성원의 해석체계에 의하여 드러나는 주관적 권력의 양상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Giddens는 정보축적은 시간-공간 차별화의 결과적 현상이며 권력창출(generation of power)의 원천임을 의미한다.<sup>(11)</sup> Giddens는 정보의 궁극적 축적의 핵(core), 생산의 핵은 국가에 있고 그는 국가를 조직화된 정보체계(organized intelligence)라고도 정의<sup>(12)</sup>하며, 그밖의 여러 사회부문조직의 권력관계는 이러한 국가적 권력축적으로부터 규칙(rules)이 생성되어 나오는 형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Giddens는 거시적인 역사성의 맥락에서 상징체계의 구조성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합의된 상징체계를 결과적 개념으로 해석하며서 조직생활의 액면 내용보다 역사적인 더 근원적인 조정자(real behind controller)에 관심이 있었고<sup>(13)</sup> 사회생활의 생산-재생산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오늘날 국가는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감시를 행사하게 되고 Filly의 말을 빌리던 종이괴물(paper-monster)로서 문서화(documentation)가 더욱 방대하게 된 것이다. 정보의 통제는 국가관료제의 중요한 권력매개가 되었다. 오늘날 컴퓨터의 등장으로 정보의 집중 및 통제의 확대, 감시의 증대로 인간의 자유의 위협이 될수도 있음이 우려될 수도 있다. 국민주의의 정서가 언어에 의하여 매개되고 공감되며 국민국가 언어의 공동사회(language-communities)라는 태력이 있다. 이러한 해석체계, 주관주의에 입각한 권력생산은 권위적 자원의 축적을 배분적 자원의 축적보다 더욱 강조한 정보의 생산에 의한 구조적 변형(structural transformation)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는 이 양쪽 방향의 축적의 관계, 즉 추상적인 상부구조와 구체적인 하부구조와의 관계를 기능적 관계로 처리하였다.

(9) 앞책, pp.141—149.

(10) 근본적으로 인류가 기록(writing)을 발명한 일은 축적효과를 높이는 사건으로 본다.

(11) 앞책, p.169.

(12) 앞책, p.217.

(13) S. Clegg & D. Dunkerley, Organization, Class and Control, London; Koutledge & Kegan Paul, 1980, pp.483—550.

Marx가 잉여생산, 권력의 불균형 및 착취관계 분석, 계급투쟁의 역사전개 등, 경제적 관점에 치중하여 역사발전론을 논함에 비하여 그는 단순성을 극복하여 도시와 시골, 선진국과 후진국, 남녀차이 등 여러 차원에서 계급화를 구분하였고<sup>(14)</sup>, 프로렐타리아 계급이 국가통제를 넘어선 국가이상의 권력으로 부상하지 못함을 폭로하고 인간의 존재를 유물사관보다는 비교적 능동적으로 파악한 점이 있다. 그리고, 그는 사회를 이해함에 질서와 변동의 이분법을 극복하고 있으며 많은 신개념, 신용어를 만들어 사용해 왔으며, 정보의 축적을 권력으로 결부시킴에 기초언어학과 관련을 맺는 등, 그의 사회학은 철학의 영역까지 뻗고 있다. 여러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어느 한 학파의 카테고리에 넣기가 어려운 종합적인 관점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는 정태적(static) 분석과 동태적(dynamic) 분석의 구분 또는 공시적(synchronic) 분석과 통시적(diachronic) 분석을 함께 취급하지 못한 오류가 구조기능주의에 있었다고 보고 종래 사회시스템 및 구조연구에서 공시적 분석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마치 일종의 스냅사진(snapshot)을 찍는 것과 같이 시간적 개념을 빼어버린 현상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역사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시간의 문제는 변화와 결부되는 것이며 시간개념없이 균형자체도 논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사회시스템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능하는 재생산(reproduction)의 시스템이라고 본 것이다.<sup>(15)</sup> 구조의 파악은 어느 현실적의 기능적 연구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침전된 총적(time)인 내용을 살펴봄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며 횡적(space)으로만 위치하는 현재적 부분(present parts)으로만 사회시스템을 바라본은 실상 구조를 제대로 볼수가 없는 것이며 동태적인 역사성이 없는 구조이해가 될뿐인 것이다. 그는 사회의 실패를 시간-여행의 존재(time-traveler)라고 표현하였다. 미시적 차원에서도 인간의 두뇌구조를 이해할때 좁은 의미의 현재의 의식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의 축적, 무의식의 세계, 기억 장치에 의하여 재생산의 능력을 가진 구조로 이해해 보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기억을 축적컨테이너(storage container)로 보게 된다. 인간이 기록을

발명함은 축적의 혁신을 불러 일으켰고 인간이 동물보다 우세하게 되는 조건을 만든 셈이다. Goffman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현실속의 인간행위는 피상적인 영역을 넘어선 좀더 근원적인 무의식구조와의 상호작용, 즉 존재와 부재(不在) 사이의 연결로서 보게되는데 이러한 논리의 과정은 당연히 기능주의가 사회시스템의 통합을 완벽한 내면화의 가정하에 묶으로서 인간행위의 능동성을 간과하였다는 점을 비판하게 되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사회적 행위가 개인 동시에 결과가 되는(simultaneously the medium and outcomes of social acts) 구조의 생산-재생산(production-reproduction)의 과정, 즉, 행위의 능동성이 함께 고려되는 구조의 이중성(duality of structure)을 강조한다. 그러나 Marx나 Parsons와는 달리 사회구조의 물적환경조건에 대한 진화적 적응적 개념을 거부하였다. 그는 사회는 그들의 물적환경에 대하여 적응할 필요가 없다(Societies have no need to adapt to the material environment)고 하였고, 사회과학에서 적응이라는 개념을 아예 제거하기를 주장하였다. 사실상 역사는 적응적 측면이나 개별적 유익함과는 관계없이 진행하여 왔으며,<sup>(16)</sup> 이는 사회구조의 축적을 통한 독자적이며 스스로의 역사를 창조시키며 진행시키는 거대한 힘의 흐름의 속성을 나타냈다고 볼 것이다.

## 2. W. Schluchter와 J. Habermas의 관점

Schluchter는 구조기능주의와 유물사관에 대하여 비판하고 그 대안을 추구하고자 Weber의 서구 합리주의의 발흥에 관한 이론을 발전적으로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그는 Weber의 사회학을 19세기의 신진화론의 다음에 올 서구의 발전적 역사학(developmental history)으로서의 위치에 놓는다. W. Schluchter의 이론은 서구 합리주의를 형성함에 있어서 Weber의 사상에서 종교사상의 근대화의 인과적인 관점의 독자적인 논리와 역사적인 우월성(autonomous logic and historical primacy)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낡은 진화론과는 달리 주목할 특이성이 있는 것이다.

Schluchter의 역사관은 Habermas와 흡사한 점을 볼수 있는데 모두 J. Piaget나 Kohlberg와 같

(14) 박영진, 한상진(옮김), 「비판사회학」(A. Giddens 著, Sociology), (현상과 인식, 1982)

(15) 앞책, A. Giddens, p. 17.

(16) 앞책, pp. 84-85.

은 발달심리학자에서 이르면 인지학습이론(cognitive learning theory)과 밀접한 결합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Schluchter는 합리화과정(rationalization), 반사적인 원리(reflexive principle), 정당성(legitimacy) 확보의 문제를 논한 반면, Habermas는 의사소통의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 자유언론상황(ideal situation of speech)의 문제를 비과학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는 상이점을 보인다.

우선, Schluchter의 입장을 알아보면, Schluchter는 Weber의 종교사회학을 발전적 역사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는데 역사의 평가기준으로서 행위(action), 규범(norms), 원리(principle), 반사적 원리(reflexive principle)의 4단계의 구분방법을 택하였다. 이는 종래에 전통, 법, 경제, 종교, 윤리, 기술 등의 개념들이 개별적 분야로서 연구되어 오던 것을 역사적으로 통합하여 연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였다. Schluchter는 윤리적 발달의 단계도 역사의 평가기준의 단계에 대응하여 체계를 세우는데 마술적 윤리(magical ethic), 법적 윤리(law ethic), 신념의 윤리(ethic of conviction), 책임의 윤리(ethic of responsibility)로 분류하였으며, 특히 세번째 단계인 신념의 윤리와 네번째 단계인 책임의 윤리 사이의 관계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는데 이것은 규범적 관심(normative interest)에 관한 서술이며 그의 Weber의 제구성 이론의 요체가 될 것이다.<sup>(17)</sup> 다만 진화이론이 흔히 구조적인 접근에 그친 반면에 그의 발전적 역사관은 서구 근대화에 관한 인과적인 관심을 두고,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ascetic Protestantism)의 여러 특성이 기독교의 다른 종파나 다른 세계 종교와는 달리 책임의 윤리의 수준을 가늠기 때문에 서구 근대화와 합리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sup>(18)</sup>을 밝히고자 하였다.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은 특히 세계의 지배(world mastery)에 관한 동기(motivation)를 유발시킨다고 본다. 일반적 발전적 변화과정으로서 합리화(rationalization)를 지향하는 종교는 보편적인 진리를 지향하는 초월신, 유일신, 해방적 성격의 신의 속성을 지닌 형태가 되며, 그 종교의 논리(logic)

는 율법(rule)의 차원이 아닌 원리(principle)의 차원이 되며, 더 나아가 자율적(autonomous)이고 반사적 원리(reflexive principle)로서 세속적인 세계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의 입장에서 늘 개인지구조가 발달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세계관(world views)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천적 변혁적인 힘을 발휘하는 신념이상의 책임윤리로 나아가는 과정과 일치한다고 볼 것이다. 합리화는 사상의 수준에 있어서 내적 필연성(inner necessity)의 결과이며,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이 전반적인 통일된 체계를 세우고 있으며 전이적적인 윤리가 필요로서 보편적 윤리의 속성을 지니는 것이라는 Weber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비교적인 접근을 많이 하였으며 자신은 자신의 연구와 Weber의 연구를 함께 발전적 역사이론(developmental history)이라고 명명하였다. 그의 연구는 Weber의 역사관을 받아들여 Weber보다 더 넓은 발전의 일반론을 세우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Weber의 역사관을 보면 역사란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현실이란 자연상태로서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실현의 역사의 의미에서 살피볼 것이다. 인간은 그들의 역사를 만들고 스스로 부종하는 역사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가치(value)에는 당연히 판단(judgement)이 요청되며, 제동적 역할과 자의의식(self-awareness), 자기보존(self-preservation)의 합리화에 대한 내용의 개개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제도적인 영역에는 정당성의 정당(legitimacy appropriation)의 문제가 제기되고 상충되는 사상과 이해관계 사이에는 긴장이 항상 유발된다.<sup>(19)</sup>

합리화는 이념의 영역뿐만 아니라 제도화의 영역의 양면에서 진행되는 역사적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Weber 이론의 핵심은 구조와 개인, 질서와 행위사이의 구분을 두지않고 결합하여 동시적으로 합리화가 진행되는 다수준분석(multi-level analysis)를 행하는 것이다. 행위는 상징적 조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질서는 제도화된 사상의 집합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발달심리학자 Kohlberg는

(17) W. Schluchter, *The Rise of Western Rationalization; Max Weber's Developmental History* (translated by G. Roth),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p.23.

(18) M.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lated by Parsons), London; Geoge Allen & Unwin, 1976.

(19) W. Schluchter, 앞쪽, p.20.

개개인의 인지발달(cognitive development)과 도덕성발달은 사회의 윤리적 발달과 구조적인 유사성을 갖고있다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20) 그의 도덕적 판단의 방향은 자율적이고 원리(principle)적인 수준으로 지향하며, 자기통제(self-control), 외부권위로부터의 독립, 능동적인 내면적 의도가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적인 개개인의 도덕성은 인지적 발달과 함께 최고의 추상성의 윤리이며 논리적 목적론적 일관성을 지니며, 자기선택의 원리(self-chosen principle), 양심의 결정(decision of conscience), 휴머니즘을 지향한 보편적 정의의 원리(universal principle of justice)가 될 것이다. (21) 그리고 신교에서 구원(salvation)의 사상은 더욱 발전적인 세계관(world views)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웃사랑의 공동체원리와 연결되며 자유와 자아실현, 해방의 사상으로 변화되며 이승에서의 보상보다 저승에 있어서의 보상으로의 관심으로 이전되는 경향을 갖는다. 이는 세계역사는 구원의 역사(22)라는 인식과 함께 신중심(theodicy)의 생활이 인간중심(anthropodicy)의 생활을 대체하며 더욱 보편적이고 발전적인 세계관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동(近東)과 서구에서는 인간이 '신의 도구'라는 사상이 지배적이라면 아시아에서는 인간은 '신의 그릇'이라는 개념이다. 모두 신과 인간사이의 간격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자의 경우는 능동적인 성취를 문제로 하였고, 후자의 경우는 해탈자의 방향이었다. 서구와 근동에서의 신앙은 신이 은혜를 베푸는 입장이고 역사에 참여하는 신인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보상적인 정의(正義)를 위하여 구태여 역사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스스로 자동적인 기능으로 윤리적인 과업을 완수하는 자연신이였다. Schluchter의 역사인식은 바로 서구의 종교사상과 만남을 불가피하게 한다. 근동과 서구의 유일신 사상은 신비화의 신앙이면서 현실에서는 자본주의 형성의 바탕이 된 세속주의 금욕주의로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나 Weber는 신중심, 우주중심의 세계관이 어떻게 인간중심의 세계관이 되고 또한 기능적인 분화현상이 나타나는 조건을 밝히는데 관심이 있었다

고 하겠다. 이러한 역사적 발달은 초월적 세계관이 세속적 세계에서 창의적 혁명적 힘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무조건적 양심의 결정과 결부된 책임의 윤리(ethic of responsibility)이다. 이때에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unintended consequence)로서 서구자본주의 발생이 그 경우라고 하겠다. 그러나 Schluchter는 Weber가 이러한 신념의 윤리로서 책임윤리(또는 반사적 원리)로 연결시키는 데는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Schluchtar의 분석은 신념의 윤리가 종교적 윤리라면 책임의 윤리는 정치적 세속적 윤리이며, 신념의 윤리가 동기(intent)라면 책임의 윤리는 결과(consequence)에 관한 윤리라고 보고 있다. 합리주의로의 역사발전과 함께 자본주의 출현 그리고 판로조직의 형성이 모두 연관되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논리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신교가 구교 또는 다른 종교보다도 책임의 윤리성이 더 큰 점과 반사적 원리의 속성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Weber는 윤리의 발전적 분석을 지배나 조직이나 정당화의 문제에도 적용함으로써 권력의 본질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23) 정당성 확보의 문제가 지배의 관건이라고 보았다. 법사상도 윤리적 발전단계와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의 발달단계에 따른다고 보았으며 신념의 윤리에 해당하는 단계가 자연법이며, 책임의 윤리에 해당하는 것이 실정법이라고 보았다. 자연법과 실정법은 공존하며 상호보완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Schluchter의 역사성에 관한 논의를 요약하면 역사성을 합리화과정으로 보았고, 주관적인 사상의 영역, 세계관이 보편적 이성(universal reason)의 원리로 체계화되는 과정과 이에 당연히 따르는 현실적 영역, 제도화 영역에서 반사적, 실천적 변혁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두가지 동시적 진행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역사분석에 있어서 구조의 역사와 생활의 역사, 구조와 행위, 거시와 미시의 두가지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Schluchter는 서구 근대화에 관한 발전적 역사에 관한 정리를 잘하고 있으며 비교문화적 논의가 가능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고

(20) A. Blasi, "Vico,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Human Nature", Social Research, 1976, 겨울, pp.672-697에서 인성발달에 관한 Vico의 3 수준과 Kohlberg의 6단계를 비교하면서 도덕성과 잘 연관시키고 있다.

(21) W. Schluchter, 앞책, p.48.

(22) 앞책, p.158.

(23) 앞책, p.80.

도 하겠다. 그는 1980년대에 사회학 발전에 기록될 만한 인물이다.<sup>(24)</sup>

이상의 Schluchter의 논의는 역사성에 관하여 Habermas와 흡사한 점이 많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다만 Schluchter는 진화적 과정에 정당성의 발생을 다룬 반면에 Habermas는 정당성의 요청을 발견하고 비판적 변혁은 구성하였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Habermas는 Marx의 사적유물론을 재구성하여 독자적인 체계를 세웠다. 다만 그가 노동보다 상호작용 측면을 강조한 점이 Marx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즉 Marx는 생산성 향상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인 노동해방의 도구적 행위(instrumental action)를 중시한 반면(이에 따라 기술이나 지식의 축적을 중시하였다), Habermas는 인간과 인간사이 상호작용의 의사소통행위(communication action)를 근본으로 한 정당성과 진실성의 문제를 더욱 중시하였다. 그리고 Habermas는 초기에는 Adorno, Horkheimer와 함께 비판이론에 썼으나, 점차 Parsons와 연결되어 시스템진화의 개념(system evolution)을 도입 발전시켜 Schluchter와 마찬가지로 사회진화의 이론(theory of social evolution)의 범주에 속하는 이론을 제시한 셈이다.<sup>(25)</sup>

J. Habermas는 인지발달적 입장을 취하였으며 사회의 상징구조도 발전적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다고 보고있다. 그는 진실증주의(Neopositivist)의 입장을 취하여 언어의 역할을 중시하였고 언어가 진화의 사회문화적 단계의 이해의 매체가 되며 의사소통행위(communication action)에 의하여 사회적 실체를 구성하는 의미와 상징적으로 구조화되는 객관적 영역을 가정하였다. 언어의 일반적 구조는 이해(understanding)의 접근으로 탐구될 수 있으며 경험(experience)적 관찰의 접근과는 달라야 한다고 하였다.<sup>(26)</sup> 사회적 행위는 상황정의(definition of the situation)에 의존하며 이는 개인적인 동기 유발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을 매개하고 공유하는 세계관, 가치체제인 사회와 문화의 복합구조를 형성하는 간주관적인 의미구조가 되는 것이다. 언

어는 이러한 준거를 형성의 매개자로 보았고 사회의 의사소통체제를 원활히 하는 담론(discourse) 및 정보의 흐름이 인간해방 및 창조적 문화사회를 이루는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설파하였고 언어구조(language structure) 속에 사회적 존재와 인간의 삶이 드러나게 된다고 보았다.<sup>(27)</sup> 이와 관련하여 동시에 비판주의 입장을 취한 Habermas는 오늘날 기술적 이성(technical reason)은 밝으나 해방적 이성(emancipating reason)은 흐려져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있다. 비판이론은 프로이트학파의 정신분석(Freudian psychoanalysis) 방법을 원용하여 적용한 것인데 이는 단순한 해석학적 이해를 넘어서서 체계적으로 왜곡된 커뮤니케이션(systematically distorted communication)을 진단하여 자기기만(self-deception)에 빠져있는 허위의식을 파헤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관찰을 통한 직접적 접근과 의사소통의 매개를 통한 언어의 이해의 방법사이의 차이가 나타남을 인식한다. 즉 그는 건전한 대화를 강조한 것인데, 그의 의사소통의 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mmunication)이 되는 것이다. 상호작용의 맥락속에 의사소통 행위는 정치적 거시구조와 언어행위(speech acts)와의 연결을 꾀하였다. 이상적인 언론풍황(ideal speech situation), 순수한 합의(genuine consensus)에 도달하게 되며, 소의를 유발하는 왜곡된 의사소통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적인 화자(speaker)는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내고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관계를 수립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가져야 한다. 언어는 인지적 사용과 포출적 상호작용의 사용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언어행위에는 화자(speaker)의 참가와 합의를 이루는 올바른 의사소통의 과정에 따른 조건충족의 진실성 원칙(sincerity rules)에 대한 요청이 있다. 즉, 진리는 보편적인 타당성 요청(validity claim)이다.<sup>(28)</sup> 그는 권력과 진리를 구분하여 보는데 Foucault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권력이 인간의 진실한 욕구를 외면하고 허구적 합의를 만들어 낼수 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24) 앞책, p.27.

(25) J. Habermas,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translated by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1976, p. 8.

(26) 강영제(譯), 「인식과 관심」(하버마스, Erkenntnis und Interesse, 1969), 고려원, 1983.

(27) 인간의 두뇌도 언어구조로 되어있다는 반정신의학자의 M. Shatzman의 입장파도 연결하여 생각해 볼만하다.

(28) J. Habermas, 앞책, p.9, p.52.



경우의 권력은 정당성이 저작되었음을 바라보고 그 취위를 점치려한다.<sup>(29)</sup>

Habermas가 Kohlberg의 자아발전론에 크게 근거한 점은 정체성(identity)이 중시되며 역할(role)의 의미가 감소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Schluchter와 유사한 역사성 관점이 될 것이다. 그는 언어적(linguistic), 인지적(cognitive), 의사소통적(communitive) 능력의 발달에 대한 가정을 취하여, 자율적 자아(autonomous ego)와 해방된 사회(emancipating society)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믿고있다.<sup>(30)</sup> 비판이론도 자율적 자아개념과 밀착되어 있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또한 그의 이러한 입장은 의사소통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규범적인 구조(normative structure)의 발달, 도덕성의 발달(moral development)과 연결된다. Kohlberg가 제시하는 인성발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러한 자아정체성(ego identity)과 도덕의 의식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자율적(autonomous)이며, 원리적(principled)적 수준을 나타내며 정의(right)가 양심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밝혀지며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인권의 평등에 관한 보편적 세계관의 원리—십계명처럼 구체적인 율법(rule)이 아니라 추상적인 윤리적인 원리(principle)를 추구하는—의 단계라고 한다. Habermas의 해석에 따르면 이대는 상징적 세계(symbolic universe)의 형성에 참여하는 것이며, 자유와 보편적인 언론의 윤리(universal ethics of speech)가 핵심적인 중요성을 띠게되며 타당성 요청(validity claim)의 문제가 제기되고 상호작용능력(interactive competence)으로부터 도덕의식을 이끌어 낸다. 즉, 도덕의식은 일반적인 상호작용 능력이라는 그의 서술에 주목할만하다.<sup>(31)</sup> 그리고 의지의 담론에 의한 관계형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Habermas의 한가지 공헌은 근대국가의 정당성 문제, 자본주의 사회의 정당성위기로써 혁명의 가능성을 지적한 점이라고 하겠다.<sup>(32)</sup> Habermas가 권

력 및 지배의 형식을 정당성(legitimacy)의 문제로 표현한 점이 또한 Schluchter와 흡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정당성을 Schluchter는 합리화되는 과정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려 한 반면에 Habermas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서 찾아보려 한 점이 다소 다르다고 볼 것이다. 그는 정당화시키는 시스템(justificatory system)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며 그의 진화적 이론의 배경인 이러한 정당화 수준(levels of justification)은 의사소통의 능력과 관련되며 권력이 합의(consensus)를 생산해내는 양식(mode of production)인 것이다. 정당성 문제와 관련하여 Habermas가 논하는 권력의 원천에 대한 특이점은 Marx나 Giddens와는 달리 축적에 의한 지배개념보다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만족할 수 있는 사회관계의 개념을 더욱 중시한 것이다.

### 3. A. Touraine의 관점

후기산업 사회학(Post-industrial sociology)의 창시자라고도 불리워지는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A. Touraine는 기존 사회학의 편견을 크게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며, 역사성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인 정의와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sup>(33)</sup> 역사성은 사회가 기능하는 모델을 재생산하는 능력, 사회가 스스로 변할수 있는 능력의 수준이라고 보며, 이러한 역사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운동을 중시하고 있다.<sup>(34)</sup> 여기서 그가 말하는 사회운동은 역사성 지배에 관한 투쟁의 의미로서 혁명과는 달리 발전적인 개념과는 무관하다. 역사성은 문화특성의 통제력(control of cultural orientations)에 대한 경쟁을 통하여<sup>(35)</sup> 사회의 자기생산(self-production)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운동은 사회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사회운동으로서 사회학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인간이 역사를 만든다', '사회 중심에 사회운동이 불타고 있다'는 표현은 그의 사회학을 특징지어 주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역

(29) 문화과 사회연구소(譯), 「후기 자본주의의 정당성 연구」(J. Habermas, Legitimationsprobleme im Spätkapitalismus, 1973), 1983.

(30) 앞책, p.71.

(31) 앞책, p.90.

(32) 앞책, p.20.

(33) A. Touraine, The Self-production Society (translated by Derek Coltma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pp.15-64.

(34) A. Touraine, The Voice and the Eye; An Analysis of Social Movement (translated by A. Duff),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105, 461.

(35) 앞책, p.30.

사건행에 인간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보이는 것이며 사회가 스스로 자체를 창조하는 면을 중요시하고 동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행위의 사회학’(sociology of actions)을 제시하고 있다.

역사성은 계급관계와 구분되어야 하며, 또한 시스템은 역사성의 산물이라는 인식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거시적인 사회조직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사회를 질서잡힌 체계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역사성에서 멀어지면 기존질서에 보수적인 사회로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등 점차 역사성의 분석과 사회운동을 문화적인 투쟁의 영역으로 승화시키고 있다.<sup>(36)</sup> 이러한 역사성의 주도권을 쥔취하기 위한 문화투쟁을 연구자(researcher)라는 이론에 의한 행위자에게 중재(intervention)의 형식으로 담당시킬 것을 중용함으로써 미시적 접근이 가능한 길을 열었다고 하겠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사상이 없거나 의식이 부족한 계급행동은 사회적 에너지의 충돌이며, 이를 이론적 차원으로 늘린 연구자들의 행위관계로 전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따라서 역사변화는 제산박탈이나 계급혁명으로 충분치 않은 문화현상임을 주장하고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계급투쟁을 거부하였다.<sup>(37)</sup> 맹목적으로 과거해지는 계급투쟁을 반대하고 계급의식 없이는 계급없다고 하여 의식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운동은 높은 수준에서의 집단행동이라고 하였다. 사회운동은 집단의 핵(core)의 모습을 지니는 셈이다.<sup>(38)</sup> 사회는 이러한 행위자 사이의 관계 이외에는 본질을 알수 없다고 하였다. 역사의 법칙은 법이나 사회관계가 아니라 역사성 영역에서의 행위자에 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의 문화특성이 달라지면 역사성의 주도권에 대한 경쟁, 사회의 자기생산 양식에 대한 통제력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데, 이것은 역사성을 향한 명분의 싸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역사성의 문제는 어떠한 경우이든 서로는 상대에 대하여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동적인 상태 및 관계에 놓여있게 되는 것이다.

사회운동은 이러한 역사성만큼 이루어진다. 그리

고 이러한 역사성이 활발한 경우를 바람직하게 보고 있다. 역사성이 약하던 오히려 구조적 차원에서의 과격한 계급운동이 나타나고 역사성이 지나치면 유토피아가 위협을 받게된다. Touraine는 사회속의 갈등의 문제를 명쾌하게 다룬 셈이다.

이렇듯 Touraine는 질서위의 투쟁의 열기를 보았고 이를 항시적 현상, 보편적 현상으로 파악한듯 하고, 바로 사회의 본질을 본뜬다. 이는 질서위의 저항세력이 항존해 있음을 보고 이는 마치 시멘트 바닥 밑에 숨어있는 봄의 기운을 재발견, 침묵속의 언어, 이념밀의 회의를 발견하는 것과 같으며, 새로운 갈등, 새로운 위기를 이해하려는 입장인 것이다. 68년도 유학을 휩쓸던 학생운동에 대한 해석도 이러한 맥락에서의 인식인 것이다.

역사성의 경쟁은 미래지향적이며 행동의 사회학인 것이다. 비판이론과 비교할때 이점에서 더 앞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sup>(39)</sup> 역사성이란 사회가 스스로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본 그의 입장은 비결정적 사고이며, 사회의 자율적 창조성이 사회갈등의 본질로 본 입장은 갈등을 부정시키는 입장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사회모순을 분석하여 이를 바람직한 이상적인 방향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로 요청됨을 밝힌 것이다. 그는 이러한 과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행위자들의 자기분석(self-analysis)이 중요하며 역사성을 활발히 하는 방안이라고 보는 것이다. 토론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인데 이러한 모든 과정에 사회학의 기여가 요청된다고 보았다. 사회학은 마치 일기에보름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성의 수준을 드높히는 사명을 갖고 있으며, 위기나 갈등이 맹목적으로 간과되는 점을 막으며, 행위자들이 자기분석의 바탕을 다룰때주며, 성공적으로 역사성에 대한 자기분석과 중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돕는다. 그는 이러한 역할의 사회이론의 중요성을 매우 높이 부여하면서 ‘영원한 사회학’(permanent sociology)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하였다.<sup>(40)</sup>

Touraine는 진화학습과정과는 거리가 멀 기능주의에 사회운동을 크게 도입하지만 현재를 치중해 보는 사회학의 입장을 해결했다고 본다. 사회운동

(36) 앞책, pp.49-53.

(37) 앞책, pp.16-18.

(38) 앞책, p.37.

(39) 앞책, p.37.

(40) 앞책, pp.142-149, p.165.

에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특성(action orientation)은 문화전통에 의하여 구조화된다. 학습과정으로서 사람이 사회운동을 인식하면 실행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결국 제도적인 구원을 이룬다.

그는 권력의 문제를 역사성의 통제로 보아 바로 역사성이 권력형성의 근원됨을 밝히고 있다.<sup>(41)</sup> Touraine는 국가에 역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영역이라고 본다. 국가에 대하여 언급하지만 국가의 권력을 지배체제의 권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국가가 중재(intervention)를 위하여 통제체제를 필요로 하기는 하나, 이에 의한 통합적 권력의 성격과는 무관하다. 그가 국가산업사회를 프로그램 사회(programmed society)라고 보는 것도 이에 연류한다.

이상의 Touraine의 역사성에 관한 입장을 요약하면 역사성이란 문화의 영역을 두고 누가 지배하느냐의 투쟁이며, 이는 사회를 재생산하는 양식이라고 보는 것이다. 역사성 영역의 통제에 관한 문제는 각 이해관계를 이어주는 것이며, 소외가 아닌 참여에 의한 행위, 그룹 및 행위자의 갈등 및 관계라고 보는 것이다.<sup>(42)</sup>

Touraine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과 비교해 볼때, 우선 Parsons와 비교해 보면, Parsons는 Touraine보다 비교적 투쟁의 의미가 약하고, 소외를 유발시키는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Touraine가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구성한대 반하여 과거지향적인 적응적인 보수적인 이론의 틀을 갖는다고 하겠다. Touraine는 사회를 분석함에 있어서 형이상학적 초월적인 입장을 버리고 객관적인 차원으로 아주 가까이 내려와 있다. 즉 초월적 문화양상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아주 가까이 내려와 있다. 즉 문화양상을 종교, 철학, 이념 등 형이상학으로 파악하는 입장을 떠나 권력을 생산하는 역사성 현상으로서 객관적으로 서려는 입장에 놓이는 것이다. 이점은 Weber와 가까이 있으며, Hegel과도 차이가 있다. 가치란 사회구조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안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Touraine는 생산과 생산관계 그 이상을 형이상학으로 보고 있으며, 그가 규정하는 연구자(researcher)도 역사성의 지배에 대한 투쟁과정인 사회운동에서 방관자의 입

장이 아니라 몰입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학을 좀더 구체적인 현장에서 분석하려는 의지이며, 사회학을 좀더 형이하학으로 내려오게 하였으며, 흔히 실제 논하는 가치사회현상과 이의 진화론을 거부한 셈인 것이다.

Touraine는 Marx와 비교할때 Marx보다 훨씬 비결정론적이다. 그리고, 분석수준이 Marx가 거시적인 계급분석인 반면에, Touraine는 행위자의 미시적인 수준인 것이다. Touraine가 문화적 영역에 대한 주도권 투쟁으로 역사성을 보는 입장은 Marx와는 달리 계급분석 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계급위에 숨어있는 역사성의 동태적 기항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분석수준은 다르나 모두 변증법적으로 갈등관계를 처리하고 있음은 유사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Marx가 역사진행에 대하여 생산력발전이 역사로서 진화적 낙관적인 관념을 가진 반면에, Touraine는 진화와는 무관한 중성의 입장이다.

### Ⅲ. 권력변화의 문제

사회변동이라는 말을 사용할때 이 의미는 대체로 사회구조및 질서라는 개념과 구분 대비하여 쓰일때 사용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분을 극복하고 동시에 양쪽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총체적인 개념으로서 권력변화의 개념을 사용한 사회의 정태성과 동태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실제, 역사성에 대하여 논의를 해온 학자들은 모두 지배 및 권력(power)의 존재형식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고 또 한 그 논의를 하는 가운데 권력이나 지배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권력에 관한 규명 자체는 바로 사회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으로 간주한 듯하다. 사회의 실체를 이해함을 바로 권력의 규명으로 연결시킴은 권력변화가 중요한 사회학의 중심적 과제이며, 이것의 행명은 파생적으로 사회의 많은 이슈를 결정하며, 또한 설명가능하리라는 견해인 것이다.<sup>(43)</sup> 권력만이 영광이며 권력만이 말하고 생존하며, 나머지는 굴욕이며 침묵한다는 표현이 해당될 것이다.<sup>(44)</sup> 이것은 권력의 의미를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권력기

(41) 앞책, p.75.

(42) Durkheim의 참여의 이론과 비교할만하다.

(43) 이는 마치 오늘날 심리학이 인지구조를 해명함을 최대 이슈로 하고있는 것과 대비할만 하다.

(44) G. Owell의 「1984」의 소설이 이해를 도울것이다.

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생각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더라도 사회 및 조직현상을 제대로 보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현상은 권력대르 나타나고 권력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Foucault는 진리란 권력의 표현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다.<sup>(45)</sup> 이 세상에서 권력 이상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신(神)도 자신의 진리를 나타낼 때 결국 권능과 힘(power)의 형식으로 나타났던 것이다.<sup>(46)</sup> 기존권력에 대항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움직임이 있다면 이는 권력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며, 권력이 재생산되는 것이다. 즉, 권력은 바로 사회의 결과요 결론이며 총결산인 셈이다. 사회관계 모든 형태는 권력이 규정하는 이상의 형태를 지니지 못한다. 학문, 종교, 가족생활, 법률, 정치생활, 정치, 군대 등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권력은 사회의 보편적인 존재형식이며 조직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권력은 엄밀한 사회적 현실이며 사회 자체이기 때문에 그 원천이 어떠한간에 권력을 간과하고는 사회적 실패에 대한 탐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 필자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성의 문제에는 권력의 분석 및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부조건 권력을 거부하는 가치판단은 무의미한 일이며, 권력에는 인간을 노예화시키고 억압하는 권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며 해방시키는 권력이 있다. 즉, 권력은 중성인 셈이다. 자유를 사랑하고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능력에도 필요한 것이다. 자유는 힘이며(Freedom is power), 자유와 권력은 마치 한개의 동전의 앞뒤와 같다고도 하겠다. 원없는 외침이란 무효가 되며, 반대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권력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즉 역사성을 옹호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권력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권력이 어떻게 정의되고 체계화되며, 어떤 성격을 지니며, 어떻게 획득되어지는가의 권력에 대한 논의와 관점상의 차이가 중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거론된 제학자들의 권력에 대한 논의도 서로 다르게 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여기서는 우선 각 학자들이 역사성의 관점과 권력문제를 어떻게 결부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이를 비교해 볼 것이다.

A. Giddens는 비적응적 비진화적 축적의 역사관을 가졌으며, 권위적 자원(authoritative resource)의 축적 및 정보의 축적에서 권력의 재생산을 발견하고 있으며, W. Schluchter는 인지구조의 발달과 합리화(rationalization)에 의한 가치실현의 진화적 역사관을 갖고, 또한 합리화에 의한 정당성(legitimacy) 확보가 권력의 존재형식이 될을 논하고 있다. Habermas도 역시 Schluchter와 마찬가지로 언어구조, 상징구조의 진화적 발달의 역사관을 갖고, 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향상, 보편적 언론의 윤리의 문제에 의한 관계의 정상화 차원에서 권력의 근거가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Touraine는 비진화적이며 역사성을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역사관을 취하고 있다. 그는 사회를 재생산하는 형식을 지배하는 문화적 특성에 대한 통제의 경쟁 및 갈등으로서 역사성을 보며, 이러한 역사성이 바로 권력의 원천임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요약해 본 역사관과 권력에 대한 관계 및 논리를 학자별로 상세히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Giddens는 종래 사회학의 일반적인 경향으로서 권력은 사회생활의 2차적인 특징으로 보려는 견해에 반대했으며, 권력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라는 M. Weber의 정의를 거부하였다. 그는 권력을 강압적(coercive)이라는 부정적 생각을 멀리하고 지배와 권력을 오히려 집합적 성격(property of collectivities), 구조화된 속성(structured properties)으로 바라보는 Parsons와 Foucault의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비의사결정의 영역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권력의 확대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sup>(47)</sup> Foucault는 권력은 그 기능이 강압적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말한다. 즉, 권력은 사물을 생산하고(produce things), 기쁨을 유발하며(induce pleasure), 또한 지식을 형성하고(forms knowledge), 담론을 하게하며(produce discourse), 생산적 네트워크(productive network)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Parsons는 지배와 권력의 핵심에 인간행위의 변혁적 능력(transformative capacity of human action)이 놓여있는데, 이는 사회생활에서 해방 및 생산적 측면과 억압 및 파괴

(45) C.C. Lemert (ed.), French Soci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pp.293-307.

(46) 콘스탄티누스대제가 이교도를 무찌름으로서 기독교가 공인된 사실을 읊미해 본다.

(47) A. Giddens, 앞적, pp.49-50.

적 측면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sup>(48)</sup>

Giddens은 권력의 원천을 축적(storage)에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타입에는 배분(allocation)과 권위(authority)의 두 자원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객관적인 자연에 대한 인간지배로서 행사되는 것인데 후자는 인간이 창조한 사회자제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Habermas가 노동(work)과 상호작용(interaction)을 구분하여 접근한 방법과 매우 흡사한 연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Giddens는 권력의 2가지 원천중 후자의 권위적 자원의 축적을 더욱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Giddens가 이러한 구조화이론(theory of structuration)을 전개함에 있어서 변환과 매개(transformation/mediation), 생산과 재생산(production-reproduction)의 구조의 이중성으로 권력을 파악함은 흔히 기능주의 입장에서 권력의 문제를 다룬 것과는 다른 동태적 측면이 강조된 입장이라고 하겠다.

Schluchter는 Weber의 지배에 관한 사회학(sociology of domination)이 그의 발전적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제도적 관점과 평가적 관점을 동시에 수용하여 조직에 의한 지배(domination through organization)와 정당성에 의한 지배(legitimate domination)의 결합이 지배구조의 순수한 타입이라고 보았다. 정당성의 지배근거로는 전통적(traditional), 카리스마적(charismatic), 합리적(rational)인 지배형태를 들고 있다.

지배의 안정성은 피지배(the ruled)가 질서의 정당성에 관한 신념(conviction of rightness of order)에 의거하여 실천적 윤리, 책임의 윤리로 나아가갈 때 가장 확실히 보장된다.<sup>(49)</sup> Weber의 정당성의 주제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사상의 정당화(subjective legitimating ideas of actors)로부터 객관적인 행위의 정당화 문제(objective justifications of actions)로 확대시키는 관계를 제기한다. 합리화과정은 지배를 위한 강제(compulsion)가 법적인 강제에서 양심의 강제로 바꾸어지게하며 이는 외부적, 구체적, 경험적인 차원에서 내적, 논리적, 추상적인 해석의 차원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화

(generalization)에서 체계화(systematization)과정이며, 인지적발달(cognitive development)과 필적하는 것이다. 이 체계화는 역사적 단계에서 후기의 현상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지배형식이 평가기준의 단계(행위—규범—윤리—반사적 윤리)나 윤리적인 발전의 방향(신화적 윤리—법적 윤리—신념의 윤리—책임의 윤리)의 발전과정과 대응하여 제시법(revealed or magic law), 전통법(traditional law), 자연법(natural, deduced law), 실정법(positive, enacted law)의 순(順)으로 나타낼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자연법은 보편주의 원리이며 이성적인 내면성을 지니는데 비하여 실정법에는 법의 독자성이 부여되며 실천적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는 측면이 반사적 원리(reflexive principle)를 나타낸다.<sup>(50)</sup> 그런데 주목할 점은 자연법체제는 실정법 없이는 공허하고, 실정법체제도 자연법적 원리가 없으면 맹목적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이 두가지는 반드시 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하면 비생산적, 비합리적이 될 것이다.

이상 역사성을 합리화과정(rationalization)으로 보았고 주관적인 신념으로서 보편적 이성의 원리로 체계화되는 과정과 동시에 반사적 실천적인 변혁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두가지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합리화의 역사적 진행은 신념의 윤리(ethic of conviction)에 실질적 가치합리성(substantive value rationality)이 해당되며, 책임의 윤리(ethic of responsibility)에는 형식적 가치합리성(formal-value rationality)이 관련되는 두 과정을 의미한다. 다만 후자가 역사적 발전의 흐름을 따라 점차 더욱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겠다. 그리고 관료제의 지배형식은 형식적 절차적 합리주의(procedural rationalization)의 양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합리화과정의 역사적 성격, 즉 규칙(rule)에서 원리(principle)로의 체계화(systematization)되는 그의 발전적 과정으로 보아 그 극복의 논리를 스스로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해 볼수 있을 것이다.<sup>(51)</sup>

그가 카리스마를 발전적으로 재해석한 것도 Weber의 견해와는 특이하다. 카리스마는 신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을 가진자로서 탈개성화(depersionalization) 측면이 아닌 비개성화(impersonalization)

(48) 앞책, p.51.

(49) W. Schluchter, 앞책, p.85.

(50) 앞책, p.102.

(51) 관료제의 속성을 발전적 관점에서 필자가 조심스럽게 기존 해석과 달리 가정해 본 부분이다.

의 측면으로 봄으로서 다술적 사명, 종교적 사명, 이성적 사명으로 발전적 세계관의 변화로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Schluchter의 발전적 역사의 이론에 의거한 지배 및 권력의 형식을 요약하면 합리화과정에 의한 정당성(legitimacy) 확보와 형성으로 판단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Habermas가 진화론의 역사관을 취하고 지배 및 권력의 문제를 정당성의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함은 Schluchter와 매우 흡사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Schluchter가 합리화과정(rationalization)에 의한 정당성의 확보라고 규정한다면, Habermas는 의사소통능력에 의한 타당성요청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정당성 요청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Habermas는 사회관계적 측면을 강조하고 사회시스템을 언어적으로 형성된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의 구성물로 파악하고 의사소통행위의 네트워크(networks of communicative actions)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인성(personality)을 말하고 행동하는 능력의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Habermas에 의하면 권력은 바로 의사소통의 구조와 능력에서 생성되며 사회구성원의 인지구조를 깨고 적용시키는 상징구조의 관계라고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정당화의 형식적 조건(formal conditions)은 그 자체가 정당화시키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sup>(52)</sup> 의사소통의 능력은 사회의 진화적인 학습능력과 개개인들의 인지구조 발달의 수준에 따라 여러 발전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Piaget가 도덕적 발전단계를 갈등(conflict)에서 역할(role)의 방향으로 나타내는 것과 흡사하다. 의사소통능력의 마지막 발전단계는 토론적 언론(argumentative speech)의 단계인데, 이때는 타당성요청(validity claims)이 제기되는 단계이며 규범과 역할이 정당화의 필요에 의하여 나타나며 원리(principle)의 형태를 지닌다. 이는 바로 통합의 수준을 확대하는 길이다. 언론의 타당성기반은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결속력을 지니고 있다.<sup>(53)</sup> 제도화과정(institutionalization)도 간주관적으로 인정된 타당성요청

에 의거한 합리적 행위의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타당성요청은 왜곡된 의사소통을 시정함으로써 가능하고 안정된 권력(stabilizing power)으로 유도한다. 국가는 정당한 권력의 중심적 위치에 있다고 보며, 오늘날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새로운 정당성을 찾아가는 사회복지대중민주주의국가(social-welfare state-mass democracy)의 형태로 나갈 것이라고 예견하였다.<sup>(54)</sup>

의사소통행위의 규칙은 도구적 권력적 행위의 영역의 변화에 반응하여 발전하기도 하지만, 또한 독자적인 논리에 따라서 발전하기도 한다. 생산력의 발전은 임의적일 수 없고 반드시 도래하는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형태의 성숙과 관련하여 2가지 방향으로의 학습능력진보를 의미하는데, 생물진화론자가 관심을 갖는 객관적지식(objectivating knowledge)의 진보의 경우와 도덕적 실제적 통찰력(moral-practical insight)의 진보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Habermas는 인류역사의 재생산의 요체는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이라는 명제를 수용하지단 언어의 재생산의 역할을 노동의 재생산 역할보다 더욱 중요시한 것이다.

윌자의 견해로는 Giddens와 Marx와 Habermas의 권력(power)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망라하는 것이 제시되면 권력(power)의 이해가 더 넓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Giddens는 축적개념과 정보중시, Marx는 축적개념과 유희적 입장, Habermas는 관계개념과 정보중시를 한다고 요약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55)</sup>

다음, Touraine를 살펴보면 그는 역사성을 생산양식의 지배를 위한 문화특성에 대한 통제의 경쟁이라고 보며 사회를 재생산하는 양식을 규정한다고 보았으며, 계급갈등을 이론논쟁의 중재의 형식으로 발전시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성에 의한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이 사회의 모든 조직 및 형태를 결정해 나가거나 유도해 나간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권력의 문제를 역사성의 사회적 통제로 보아 바로 역사성이 권력형성의 근원이 됨을 밝히고 있다.<sup>(56)</sup> 그리고 모든 사회관계는 권력관계로 보아<sup>(57)</sup> 역사성의 향방이 사회의 권력 및 구조,

(52) J. Habermas 앞책, p.184.

(53) 앞책, p.177.

(54) 앞책, pp.188—196.

(55) 지나친 요약에 의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앞에서 서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함께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56) A. Touraine, 앞책, p.72, p.75.

(57) 앞책, p.33.

지배관계를 규정하여 나간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시스템을 역사성의 산물로 해석하고 시스템과 환경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는다.

권력은 역사성에서 비롯된다는 이러한 발상은 권력형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권력은 불확실성의 영역을 통제하고 주도권을 쥐고 혁신을 탐구할 수 있는자, 자신을 규칙이상에 위치시킬 수 있는자에게 주워진다. 즉 이들은 엘리트이며 권력은 오직 변화를 도입하고 지배하고 이용하는 능력이다.”<sup>(58)</sup>”라고 규정할 수 있다. (Power belongs to those who can control these areas of uncertainty, take the initiative, study innovations, and place themselves beyond reach of the rules; in short, those who form the elite. power is no more than the ability to introduce, govern, and exploit change). 여기서 엘리트와 권력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오늘날 지식인에 의한 새계급(New class)의 권력부상의 이론<sup>(59)</sup>과 연관하여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Touraine가 불확실성의 영역과 변화를 다루는 능력이 발생한다고 논하는 것은 Giddens가 정보의 축적에서 권력이 발생한다고 논한 것과 흥미있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필자는 이 양자를 결합시키면 좀 더 종합적인 정의가 될것으로 본다. 즉, 변화와 관련됨으로서 가장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정보가 가장 많이 교차하고 창출되며, 또한 집중되는 곳에 권위가 발생한다는 명제로서 합쳐질 수 있을 것이다.<sup>(60)</sup> 이것은 정보시대에 돌입한 후기산업 사회의 권력과 조직원리로서 일대 새로운 설계가 시작되어야 할 원리를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Touraine는 국가에 대한 분석도 중시하고 있는데, Giddens와는 달리 국가가 독자적인 최고의 권력의 중심이 되어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국가는 다만 계급간의 갈등의 중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앞에서 서술한 바와같은 역사성이 수행되고 발휘되는 영역(field)이라고 보고있는 것이다. 국가는 어느 지배계급과 일치하는 위치에 놓이지 않으며 다만 중재를 위하여 지배계급을 중재의 대상으로서 필요로 할 뿐인 것이다. 국가는 계급에 대하여 초월적 입장에 있으며 국가

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는 역사성에서 비롯된 조직일 뿐인 것이다. 그리고, Touraine의 권력에 대한 논의를 Giddens의 입장과 결합하여 재음미해보면 이러한 가능성이 또한 열릴 것이다. 즉, Giddens의 서술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권력의 핵, 축적의 핵을 Touraine는 다원화(多元化)시킬 수 있으며, 역사성으로서 권력이 집중되고 해체되어가는 과정을 이러한 핵의 상호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평가된다. 아문데 이상에 여러가지로 Touraine가 권력에 대하여 언급한 서술을 다시 요약해 본다면 역사성에 권력의 원천이 있으며, 여기서부터 사회구조는 재생산되어 나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권력에 대한 논의를 각 학자별로 소개하거나 부분적인 비교를 조금씩 해보았는데, 앞으로 좀 더 종합적인 상호비교를 해보려고 한다. 다소 무리가 있는 정리가 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권력의 발생과정과 관련하여 사회의 구성원의 자유의 수준에 대하여 비교를 하면, Giddens는 반(半)자율적인 상태에서 점차 타율적인 수준이 되며, Schluchter와 Habermas는 타율성에서 자율성의 방향이 되며, Touraine는 당초 처음부터 자율성을 강조하여 역사진행과는 변함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역사진행의 방향을 살펴보면, Giddens는 자원의 축적의 방향, Schluchter와 Habermas는 구조발달의 방향으로서 발전적이며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나, Touraine는 역사진행을 중재의 결과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양성 미화정의 상태를 가상한다. 그리고, 권력관계 형식을 살펴보면, Giddens는 자원의 축적개념, Schluchter는 구조의 질적 발달개념, 그리고 Habermas는 언론의 관계개념, Touraine는 역사성 영역에서 행위자의 관계개념으로 파악한듯 하다. 그리고 모두 상징의 차원을 중시하는 듯하나, 그 논리의 과정은 조금씩 다르다고 볼 것이다. Giddens와 Schluchter, Habermas는 점차 형이상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반면, Touraine는 상징적 차원의 분석을 당초부터 형이하학으로 끌어내린 의미에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Giddens나 Touraine는 사회가 진화한다고 보지 않으나, Ha-

(58) 앞책, p. 44.

(59) 박영신논문, '사회운동과 새계급'(협상과 인식, 83년 봄호), pp.85-107.

(60) B.E. Collins and B.H. Ravens, "Group Structure; Coalitions, Communication and Power,"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IV, eds. by G. Linzey and E. Aronson, Addison-Wesley, 1968, pp.102-204 참조.

bermas나 Schluchter는 어느정도 발전적 진화적 입장을 취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Giddens를 거시적 분석이라면 Schluchter와 Habermas는 미시적 분석에서 거시적 분석으로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고, Touraine는 비록 거시적 대상을 갖으나 처음부터 미시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다시 제학자들의 입장을 Marx나 Parsons와 같은 대가들과 함께 좀더 비교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체계를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Marx는 사회구조를 계급구분하면서 생산력 증가와 함께 부상하는 노동계급에서 역사의 동인(動因)을 구하였다. 지배와 피지배관계, 욕구과탈의 논리에 의하여 모순된 생산관계를 규정하는 사회가 혁명적으로 변화됨으로서 진보적으로 사회가 출현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Marx는 환경변화에 관한 적응의 문제를 혁명적으로 처리한 셈이다. 이에 더 나아가 Weber의 입장을 이어받은 Parsons의 이론을 보면, (61) 그의 시스템이론 구조기능주의는 사회변화의 폭을 상당히 점진적으로 처리하여 사회적 변화요인 및 충격을 구조자체가 흡수하여 스스로 복잡 문화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진화론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Parsons는 구조주의라는 구조자체가 갖는 속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구조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며, 스스로 권력을 생산하며 진화적으로 적응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Parsons는 사회변동 요인은 구조자체 속성의 요인과 외적환경의 요인의 양면을 인정하고 있는 듯 하다. Marx와 비교할때 특히 구조성을 강조하였고, 사회 변화를 점진적으로 설명하였는데, Parsons의 역사성은 매우 약한 편이다.

다음 Giddens는 Parsons와 마찬가지로 구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구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구조의 생산-재생산의 측면을 강조하고 진화나 적응의 속성을 갖지않는 인간의 발전과 유익함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서 비적응적 역사성이 농후한 이론이 된다. 권력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조가 스스로 갖는 역사적인 구조적속성에 의거하여 시간-공간적으로 축적되어가는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축적의 문제로 권력을 다룬 Marx와 유사하나, 비분적 차원의 축적뿐만 아니라 권위적 차원의 축적을 더욱 강조한 점이 Marx와 다소 다르다. Giddens

는 사회의 변동의 문제를 설명할때 구조와 환경을 구분시키지 않고 일원화(一元化)하고 있으며, 비인위적인 구조자체가 스스로 역사를 진행시키는 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분석은 매우 거시적이며 세계사적인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 점은 Marx와 비슷하다. 그러나 계급을 다원적으로 구분함에 있어서도 Marx와 다르다고 하겠다.

Schluchter와 Habermas도 역시 역사성을 중시하는데, 인지구조 발달이론을 원용하면서 구조성이 점차 성숙의 방향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의거하여 점차 타율적인 인간상에서 능동적인 인간상으로 지향하는 진화적 발전적 측면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다. 권력의 문제에 Schluchter는 합리화과정(rationalization)에 따른 정당성 형성 및 확보로 설명하나, Habermas는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향상에 따른 언론관계의 전성 과정을 통하여 전성될 수 있는 정당성 요청을 비판적으로 논하고 있다. Schluchter와 Habermas는 형이하학적인 구조의 입장에서 점차 형이상학적인 인간의 자율성에 입각한 구조의 역사전개 방향을 논한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대체로 이념적인 차원에서 역사성을 중시한 학자들로 평가될만 하다. 이에 Touraine는 역사성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었고 당초부터 인간이 역사를 창조한다는 서술로서 인간의 자율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사회내에 계급갈등의 문제를 매우 미시적인 상징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물리적인 힘의 차원의 사회운동을 연구자들에게의 이론갈등의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미시적 갈등의 해결여하가 바로 구조전체의 권력양상을 지배하게 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는 이러한 미시적 갈등의 만남을 중재관계로서 처리하였다. 그는 구조성의 문제를 멀리한 셈이며 따라서 구조와 환경의 구분도 불필요했던 것이다. 사회구조를 생산하는 양식을 지배하기 위한 문화적 통제의 역사성에서 권력의 원천을 구하였다. 그리고 그 역사성에서 비롯되는 사회의 재생산과정을 중시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역사성에 대한 제관점을 대체로 거시분석에서 미시분석, 그리고 경제구조적 분석에서 문화이념적 분석에 이르기까지 나열해 본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는 계급성→구조자율성→구조발전성→인위성의 과정으로 역사성에 관하여 일관성 있

(61) T. Parsons, Societies, Prentice-Hall, Inc., 1966, pp.28-29.



는 서술을 시도해 본 셈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역사성과 권력변화에 대하여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 관점의 재구성을 구해보려 한 것이다. 계급성에는 Marx, 구조자율성에는 Parsons, Giddens, 그리고, 구조 발전성에는 Giddens, Schluchter, Habermas, 그리고 인위성에는 Schluchter, Habermas, Touraine로 정리하여 귀속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대체적인 경향에 의거한 것일뿐 엄밀한 구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적인 역사성인식 및 권력변화의 시도 및 이해를 통하여 흔히 일원적이거나 단순한 공식에 의한 역사서술을 넘어서서 역사의 흐름의 원리 및 역사적 조건의 해명에 좀더 다각도의 풍부한 분석 및 접근이 가능한 역사정립에 가까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 Ⅶ. 요약 및 맺음말

앞에서 거론한 유럽사회학자들은 대체로 역사성의 문제를 매우 심각히 다룬것 같다. 그리고 이들이 구조성개념을 사용할때는 미국학자들과 다소 다른점이 있다. 즉 역사성의 문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것이다.

역사성의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사회학이 역사학과의 만남의 의미를 지닌다. 현재의 조직구조를 좀더 잘 들여다보기 위하여 역사성의 인식은 불가피하다. 역사성 인식은 구조주의를 재해석하여 좀더 완성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며 사회과학을 더욱 혁신적이며 당위적 동태적 분석으로 이끌어가는 변화인 것이다.

역사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를 재생산하는 의미에서의 권력의 논의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앞에서 역사성에 관하여 언급된 Giddens, Schluchter, Habermas, 의 Touraine는 서로 역사성의 관점을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모두 자기 나름대로 지배 및 권력에 대하여 집요한 관심과 논리전개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권력변화의 부분을 밝혀하여 비교서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Giddens는 비적응적 비진화적 축적의 역사관을 가졌으며 권위적 자원 및 정보축적에서 권력의 재생산을 발견하고 있으며, Schluchter는 인지구조의 발달과 합리화과정에 의한 책임윤리 및 가치실현의 진화적 역사관을 갖으며 또한 이러한 합리화에 의

한 정당성 확보가 권력의 존재형식이 됨을 논하고 있다. Habermas도 역시 Schluchter와 마찬가지로 언어구조 상징구조의 진화적 발달의 역사관을 갖으며, 이에 의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 보편적 언론윤리의 문제에 의한 관계의 정상화 요청의 차원에서 권력의 근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Touraine는 비진화적 미시적 역사관을 취하고 있는데 역사성은 사회를 재생산하는 양식을 지배하는 문화적 특성에 대한 통제의 경쟁 및 갈등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 역사성이 권력의 원천임을 논하고 있다. 다양한 역사관과 권력분석에 관한 비교논의를 해본 셈인데, 이상의 유럽사회학은 마치 사상의 보고(寶庫)와도 같은 인상을 주었다.

Marx와 Parsons를 포함한 앞에 열거한 학자들의 관점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관점의 비교도 시도해 보았다. 계급성→구조자율성→구조발전성→인위성의 순(順)으로 나열 설명하여 보았다. 그리고 거시적 분석에서 미시적 분석, 그리고 경제구조적 분석에서 문화이념적 분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구조적 속성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종합을 시도함으로써 역사성과 권력변화에 대하여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의 재구성이 가능함을 인식해 보려고 하였다. 이것은 계급 및 구조성분석뿐만 아니라, 권력력을 따라 미묘한 움직임이나 스토리(story)의 분석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필자는 구조적 차원의 사회학이 행동적 차원의 사회학과 점진적 연계적으로 만나고 이것이 종합 분석의 틀로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보는 것이다. 권력분석 단위의 수준에 대한 고찰이, 그리고 이러한 분석수준 사이를 고찰하는 논리의 해명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이하학적 분석의 틀과 형이상학적 분석의 틀의 종합된 접근도 마찬가지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성을 규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역사를 진행시키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며 사회나 조직의 미래의 방향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과 역사의식을 생기기게하는 것이다. 앞에서 역사성의 논의는 바로 권력의 논의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역사의식의 정립을 위하여 하나의 체제를 제공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어떤 의미에서 역사의 전개는 권력변화이며, 역사의 자취는 권력의 총결산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처럼 권력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그 현상의 이해나 그 이유를 밝혀보

는 것이 중요하다. 권력의 개념을 전통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역사성과 더불어 재해석 되며, 이러한 권력분석 및 평가를 기준하여 사회의 제반 이슈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역사의 방향이 왜곡되었을 경우, 역사전행이 인간의 편에서 지않고 악과의 편에 서는 경우를 미리 알때 이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다. 오늘의 참다운 사회구조 및 조직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것이 요청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관의 혼비속에 있으며 건전한 민족사관을 갖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제 우리민족은 우리민족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잠재성과 미래의 가능성술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전통사회를 깨뜨리고 근대와 타점으로 무성토록 질주하는 우리의 사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에 와 있으며 또한 앞으로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밝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와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속에 한국의 사회는 도무지 한 시기의 일반화된 이론의 틀로 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역사적으로 특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을 자주한다. 우리는 사회를 이해하는데 구조성과 역사성의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양자의 결합을 위한 좀더 정교한 연구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사학과 사회학의 만남과 이를 통한 한국사회의 재해석은 우리사회의 이해를 더욱 철저히 하고 풍부한 분석결과를 나타낼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사회학은 오늘날 역사성의 연구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상에서 본 역사성과 권력관계의 틀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들으므로 역사성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참고로 부인하면 오늘날 미래의 역사성에 관한 한 이론모던로서 상당히 장기관을 고려하며 다양한 사회변화 양상의 이유를 밝히려고 하는 Braudel과 그의 제자 Le Roy Ladurie 그리고 Wachtel, M. Harvie 등이 제시하는 조위 geohistory 또는 ecohistory, 그리고 cultural materialism의 내용에 관한 것을 여기에서 덧붙여진 것들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것은 사회조직의 내적 요인에 의하여 변동을 설명된 종래의 대부분의 사회학자들과는 달리 인구변동, 환경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회조직의 외적요인으로 역사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사회운동이 없는 역사'(history without movement)를 중시하는 것인데, 다분히 경제적이면서 인류문화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러한 역사성에 관한 견해를 건설한 내용과 적절히 결합하면 더욱 역사성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